

월요광장

양치기는 어떻게 왕이 되었나?



심 옥 숙
인문지행 대표

반지(瓔指)는 가장 흔히 사용되는 액세서리다. 반지 중에서 가장 특별한 반지는 아무래도 ‘기계스’의 반지일 것이다. 기계스의 반지는 마법을 부린다. 이 반지를 끼는 사람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게 감출 수 있다. 흥미롭게도 ‘기계스’의 반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은 서양 철학자 중 최고라고 하는 플라톤이다. 플라톤은 ‘국가’라는 유명한 고전에서 이 신비로운 반지의 힘에 대해서 토론하는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기계스라는 평범한 청년은 리디아 왕의 양들을 보살피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하루하루를 왕의 양들에게 풀을 먹이는 것 외에는 별다른 욕심 없이 잘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진으로 벌어진 땅 틈새를 들여다보다가 동굴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간다. 동굴 속에는 손가락에 금반지를 낀 거인이 죽어 있었다. 기계스는 이 반지를 가지고 동굴을 나왔고, 반지에 숨겨진 마법의 비밀을 알게 된다.

법조칼럼



선 현 숙
광주지검 검사

최근 주요사건 수사과정에서 강압수사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을 보고 초임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6년 전, 필자가 초임 검사로 공판에 관여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검사 임관 후 처음으로 무고사범을 인지해서 범금으로 기소했던 사건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마침 필자가 직접 재판을 담당하게 되었다. 판사가 피고인에게 모두 자백한 사건에 정식재판

기 고



전 상 훈
광주첨단고등학교장·시인

교직 인생 38년. 남의 얘기로만 흘려들던 청년이 막상 내 자신의 일이 되고 보니 이런저런 감회가 파도처럼 밀려온다. 스물다섯 쫘다운 나이,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복무를 마치고마자 육지에서 멀고 먼 도서벽지 학교로 첫 발령을 받고, 그 눈망울 초롱초롱하던 아이들 앞에서 꿈과 사랑을 얘기하며 가슴 설레던 때가 엇그제만 같은데 벌써 청년이러니. 아직도 무슨 일이든 젊은이들 못지않게 잘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만 무대를 내려가라며 등 떠미는 보이지 않는 손이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세상의 자연스런 순리를 거부하고 싶어하는 스스로의 욕심이 부끄럽기도 하다.

평교사 때에는 스스로의 실력과 품행에 있어 아이들의 모범전형으로서 부족함이 없어 된다는 생각에, 관리자가 되

강압수사에 대한 고찰

을 청구한 이유를 물어보자 피고인은 ‘검사가 강압적으로 자백을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자백을 했다’며 억울하다는 취지였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그때 검사가 어떻게 강압적으로 자백을 강요했는지를 물어보았더니 피고인은 ‘증거가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 다 인정하라’며 소리를 쳐 자신의 혐의에 대해 자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내가 그때의 수사검사인데 기억이 나느냐, 내가 그렇게 소리를 치며 자백을 강요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피고인은 ‘그제서야 기억이 났는지 훗날 그러면서 “뭐 그렇게 소리를 지른 것은 아니고...”라며 말을 얼버무리기 시작하고, 결국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고 돌아왔다.

필자가 그 사건의 공판검사가 아니었다면 검사가 강압수사를 했다는 피고인

의 주장에 대해 판사나 방청하고 있던 사람들이 수사검사를 비롯해 검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지금도 재판에 들어가면 검사나 수사관이 자백을 강요하였거나 강압적인 분위기에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하는 피고인들이 종종 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검사가 피의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리를 지르며 자백을 강요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이 여전히 등장한다. 이 때문인지 일반 사람들은 그것이 검찰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단정해 버리고, 주위에서도 정말 그렇게 수사를 하냐고 묻는 사람들이 다수 있다.

필자가 모든 검사들의 수사과정을 지켜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가 아예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최소한 실제 검찰의 모습은 영화나 드라마와 같이 강압적인 것은 아니다. 검사는 실제적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

주장을 반박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기계스의 반지를 낀 사람들이 넘쳐나는 현실이다. 귀가 아프게 듣는 소위 ‘비선’(秘線)이라는 것 또한 곧 기계스의 반지 이야기가 아닌가. 이들은 우연히 굴러 들어온 힘과 권력을 외면하는 것은 무능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치에만 ‘비선’ 거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일상에서도 비선을 통하면 안 될 일도 쉽고 빠르게 된다는 것은 다 아는 비밀이다. 심지어 아플 때 병원에 가는 일마저 비선이 없는 사람은 낭패를 보는 세상 아닌가! 우리에게 깊은 분노와 자괴감을 안겨 준 거대한 비선의 실체는 주변의 작은 비선들에 대한 암묵적 동의 속에서 생겨난 괴물일 뿐이다. 일상의 소소한 이익과 편리를 위해서 서로를 비호하며 역여진 수많은 비선들은 얼마든지 능력 없는 양치기도 왕으로 만들어 낸다. 그래서 비선이 통할수록 마법을 부리는 기계스의 반지를 향한 욕망은 거세진다.

당연하지만 한 조사에 의하면 사회의 정의로움과 행복지수는 비례한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스스로 정당하고 당당하게 느낄 때 훨씬 행복하다. 누군가의 비선이 되는 것도, 비선을 이용하는 것도 결국 자신과 모두에게 불행을 초래할 뿐이다. 이제 조금 불편해도 익숙한 비선을 끊어 내고, 기계스의 반지를 빼내는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다. 우리 자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도.

社 說

대통령 측 최종변론 연기 요청 속셈 뻔하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이달 2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까지 연기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 주말 이재웅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됨에 따라 박 대통령의 뇌물죄 기소도 시간 문제가 된 데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히는 등 상황 변화에 따른 지연전략으로 보인다.

현재는 국회 소추인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이 23일까지 최종 입장을 문서로 정리해 제출하면 24일 최종 변론을 듣는다는 일정이다. 일정대로면 3월13일 이창미 재판관 퇴임 이전에 현재 결정이 선고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측은 어제 현재에 제출한 ‘변론종결 기일 지정에 관한 피청구인 대리인들의 의견’ 서면에서 “3월 2일 혹은 3일로 최종 변론기일을 다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22일 증인신문을 마치고 23일 종합 서면을 낸 뒤 24일 최종변론을 여는 일정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도 과도하게 빠

르다”는 주장이다.

또 앞서 현재가 직권으로 취소한 고영태 전 더불어민주당 이사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대통령 측은 고 씨가 ‘비선 실제’ 최순실 씨와 부적절한 관계였다가 사이가 틀어지면서 각종 의혹 폭로를 기폭하고 부풀렸다고 주장해 왔다.

대통령 측의 이 같은 일련의 행위는 어떻게 하면 3월초 선고를 피해 불가하는 꼼수임이 분명하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시간 여유가 없다며 최종변론 연기를 주장했지만, 탄핵 소추 뒤 두 달 넘는 동안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변론 종결을 무한정 늦출 수도 없는 일이다.

박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는 공언을 이미 여러 차례 여겼다. 지금 와서 뒤늦게 직접 출석하겠으니 따로 기일을 잡자고 주장한다면 ‘시간 끌기’라는 비난만 더욱 커질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구차한 조건을 달 게 아니라 지금까지라도 특검의 대면조사에 응해야 한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관광성 외유인가

전남 도의회 의원들이 연수를 발미로 관광성 외유에 나서 반축을 사고 있다. 전남 도의원들의 외유는 이번 달에만 세 번째로 도민들의 비난에도 귀를 막고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전남 도의원들은 벤치마킹을 이유로 이달 들어 상임위별로 외유에 나서고 있다. 지난 1일에는 3800만 원을 들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10명과 공무원 등 12명이 8일 동안 아프리카를 다녀왔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권 정책 벤치마킹을 연수 목적으로 내세웠지만 남아공 국립식물원과 짐바브웨 그리고 잠비아 등 주변국의 사파리 체험 등 관광 일정이 대부분이었다.

4일부터 6일간은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인도네시아 발리에 갔다 왔다. 섬 관광 노하우를 전남도의 관광산업과 접목하겠다고 했지만 절벽 사원 방문 등 신흥부부들이 들르는 허니문 여행과 다름없었다.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등 13명은 25

일부터 7일 동안 미국 하와이행 비행기에 오른다. 하와이의 다문화 교육공동체 활동을 배우기 위해서라지만 세계적 휴양지에서 무얼 얼마나 배워 올지 의문이다. 하와이행에는 현재 4800만 원이 들어간다.

제10대 전남 도의회의 관광성 외유는 지나친 면이 있다. 2014년 이후 도의원들이 방문한 나라만 스페인·모로코·브라질·남아공 등 18개국에 달한다. 거의 세계일주 수준이다.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무조건 나무랄 수는 없지만 어떤 시기에 어떤 목적으로 가느냐가 중요하다. 지금은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탄핵정국이다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확산,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일부 환수 갈등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거기다 관광성 일행이라는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 이러니 시민단체가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소환을 하자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 아닌가.

無 等 鼓

그동안 촛불 집회 때마다 열렸던 ‘만민공동회’는 탄핵 정국의 상징이자 추동력이었다. 초등생부터 노인까지 각양각색의 국민이 연단에 나와 저마다 주장을 펼 만민공동회는 우리 집회 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상승시켰다.

민주주의가 일찍이 싹뻗던 서구에서는 기원전부터 만민공동회가 있었다. 우리 역사에서 최초의 만민공동회는 정확히 120년 전에 열렸다. 대한제국 시기인 1898년 3월10일 독립협회가 개최한 종로 집회가 시

이날 만민공동회는 조선시대 최대 시장

인 종로 시전에서 열렸는데, 쌀장수가 의장에 선출되는 등 그야말로 신분 고하를 막론한 대중들이 참여한 근대적 집회였다. 당시 참가자는 1만여 명이었는데, 전체 서울 시민이 17만 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 열기는 가히 폭발적이었다.

당시 만민공동회는 대중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인 시장에서 열렸지만 참가자가 워낙 많고 시장 구조상 연설대를 설치하기 어려워 ‘다락 연설’이 진행됐다. 종로 시전 가계의 건축 표준 양식은 2층이었다. 1층은 가게고,

2층은 창고 등으로 사용하면서 ‘다락’이라고 불렸다. 이날 연사들은 백목전(백목전 판매 가게) 2층 다락으로 올라가 집 밖을 내다보며 연설했다. 마이크가 없던 시기가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잘 들리도록 다락에서 대중들에게 얼굴을 보이며 연설했다.

이어 3월 12일 열린 두 번째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가 아닌 서울 남촌 평민들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우리 민중들의 자유 민권 의지와 정치 참여 욕구가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만민공동회는 외세 배격과 자주 독립을 향한 민

족의 열망을 담은 행사로 이어졌다. 이들 행사로 러시아의 군사고문관 파견과 한로은행(韓露銀行) 계획 등이 얼마 지나지 않아 폐기됐다.

공교롭게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최초 만민공동회 개최일인 3월 10일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선고일이 가까워지면서 선고를 연기하려는 일각의 움직임이 엿보인다. 현재를 흔드는 어떠한 행위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제 현재의 선고만을 기다릴 때다.

/채희종 사회2부장 chae@

다락 연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